

배포일시	2019. 8. 23.(금) 11:00 (총 16매)	보도시점	즉 시
담당부서	기후서비스과	담당자	과장 김재영 사무관 김연희
		전화번호	062-720-0669

광주·전남 3개월 전망(2019년 9월~1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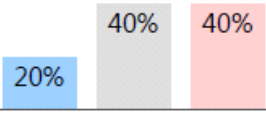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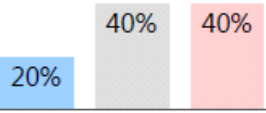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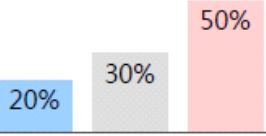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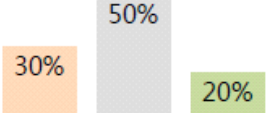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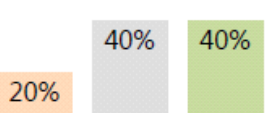
[기 온]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으나, 기온의 변화가 크겠습니다.

[강수량] 9월은 평년과 비슷하겠고, 10월과 11월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겠습니다.

[태 풍] 평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1개 내외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 (9월) 9월 초반까지는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끼는 날이 많겠으나, 중순부터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중순에 일시적으로 상층 한기의 영향을 받아 기온이 떨어질 때가 있겠습니다.
 - 월평균기온은 평년(21.4~22.2℃)과 비슷하거나 높겠고, 월강수량은 평년(61.3~215.1mm)과 비슷하겠습니다.
- (10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맑은 날이 많겠으나,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을 때가 있겠습니다. 일시적으로 상층 한기의 영향을 받을 때가 있겠습니다.
 - 월평균기온은 평년(15.7~16.5℃)과 비슷하거나 높겠고, 월강수량은 평년(31.1~54.2mm)과 비슷하거나 많겠습니다.
- (11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겠으나, 남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을 때가 있겠습니다. 또한, 일시적으로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기온이 크게 떨어질 때가 있겠습니다.
 - 월평균기온은 평년(9.1~10.1℃)보다 높겠고, 월강수량은 평년(24.9~54.2mm)과 비슷하거나 많겠습니다.
- (태풍) 평년 수준으로 9~12개의 태풍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 수는 약 1개 정도(평년 0.7개)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엘니뇨·라니냐) 가을철 동안 엘니뇨·라니냐 감시구역의 해수면온도는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광주·전남 3개월 전망(2019년 9월 ~ 11월) 요약]

	9월	10월	11월
평균기온			
	평년(21.4~22.2°C)과 비슷하거나 높음	평년(15.7~16.5°C)과 비슷하거나 높음	평년(9.1~10.1°C)보다 높음
강수량			
	평년(61.3~215.1mm)과 비슷	평년(31.1~54.2mm)과 비슷하거나 많음	평년(24.9~54.2mm)과 비슷하거나 많음
기온 ■ 낮음 ■ 비슷 ■ 높음 강수량 ■ 적음 ■ 비슷 ■ 많음			

※ 기온, 강수량은 광주·전남 7개(광주, 목포, 여수, 완도, 장흥, 해남, 고흥) 지점의 평균
 ※ 위 표의 확률 해석은 아래와 같으며, 평년기간은 1981~2010년입니다.

※ 확률예보 해석의 기준

확률(낮음(적음) : 비슷 : 높음(많음))	해설
높음(많음) 확률이 50%이상 (20:40:40)	평년보다 높음(많음)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음(많음)
비슷 확률이 50%이상 (40:30:30) (30:40:30) (30:30:40) (40:40:20)	평년과 비슷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음(적음)
낮음(적음) 확률이 50%이상	평년보다 낮음(적음)

【 알 림 】

- 3개월 전망은 "기상청 날씨누리(www.weather.go.kr) → 특보·예보 → 3개월전망"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3개월 전망은 2019년 9월 23일 오전 11시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2019년 가을철 전망

목 차

- I. 기후 감사·분석 및 가을철 전망
- II. 엘니뇨·라니냐 전망
- III. 태풍 전망
- IV. 겨울철 기후전망
- V. 최근 10년 가을철 날씨특성 및 특이기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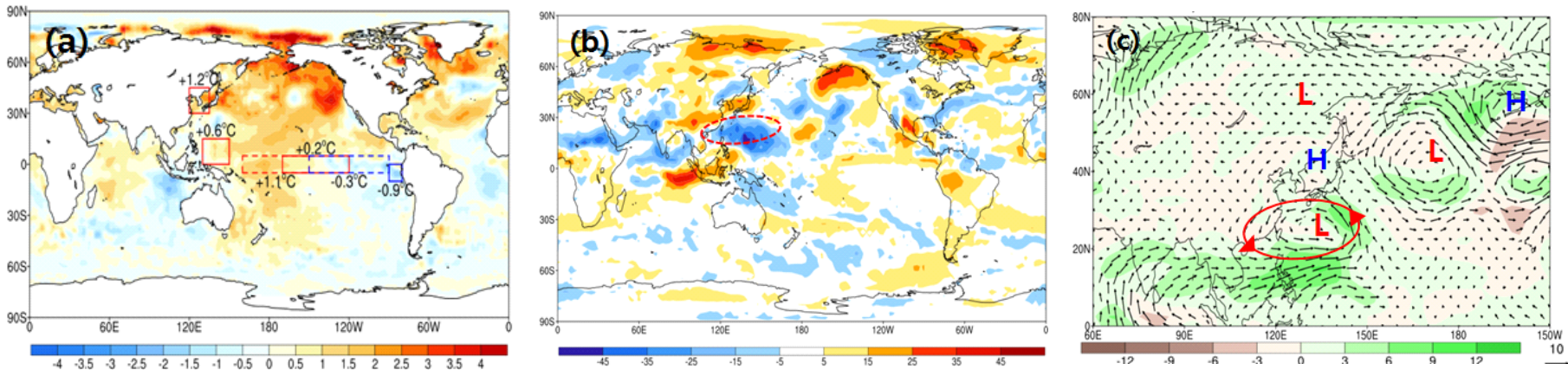
광주지방기상청

I. 기후 감시·분석 및 가을철 전망

1. 기후감시 및 분석

○ 최근 열대 해수면온도 및 대류활동 현황 (8.1.~8.18.)

- (해수면온도) 북태평양 대부분 지역에서 평년보다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열대 중태평양(날짜변경선 부근)과 베링해, 북미 서안에서 평년보다 높은 상태가 유지되고 있음. 반면, 열대 동태평양에서는 동풍이 강화되면서 해저로부터 차가운 물이 표층으로 올라오면서 해수면온도가 평년보다 낮은 구역이 확장하고 있음(그림 1-a).
- (대류활동) 열대 서태평양 부근에서는 해수면온도가 높아 대류가 활발(저기압성 순환 편차)한 상태이며, 그 북쪽에 위치한 중국내륙 및 우리나라, 일본 부근은 하강류가 발달하여 전반적으로 대류가 억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그림 1-b, 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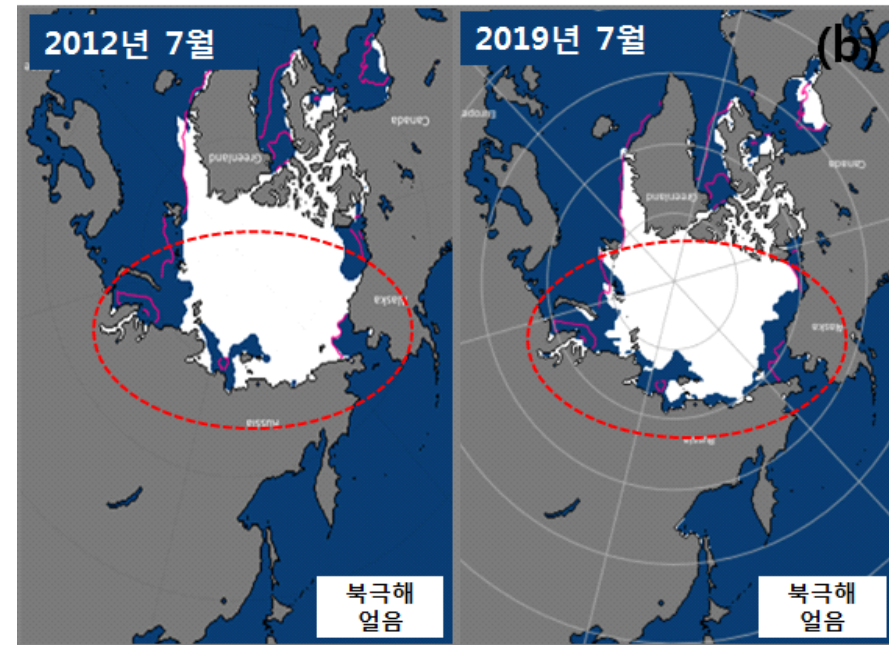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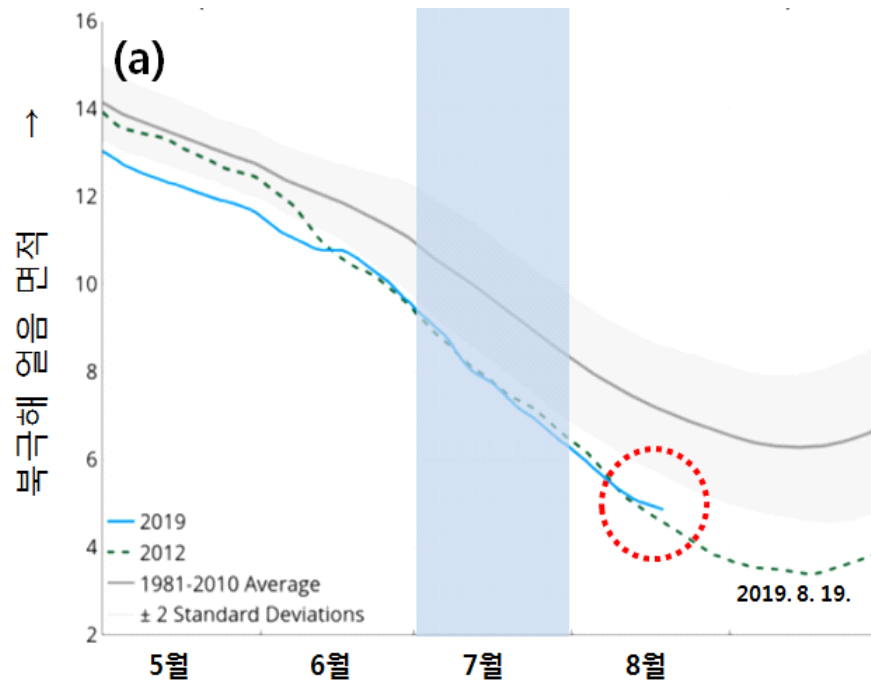
[그림 1] 최근(8.1.~8.18.) (a) 해수면온도편차, (b) 상향장파복사(OLR) 편차, (c) 동아시아 850hPa의 바람 편차

※ (가운데) 빨강/파랑 채색: 평년보다 대류 억제(활발), (오른쪽) 녹색/갈색 채색: 강한(약한) 바람

○ 북극해 얼음

- 북극해 얼음의 전체 면적은 여름을 지나면서 감소(9월이 연중 최저)하고 있음(그림 2-a).
- 2019년 7월의 북극해 얼음 면적은 역대 가장 적었던 2012년보다도 적은 값을 기록했으며, 최근에는 녹는 추세가 다소 주춤해지고 있음(그림 2-a, b).

※ 북극해 얼음 면적(7월) : 7,672km²(2012년), 7,592km²(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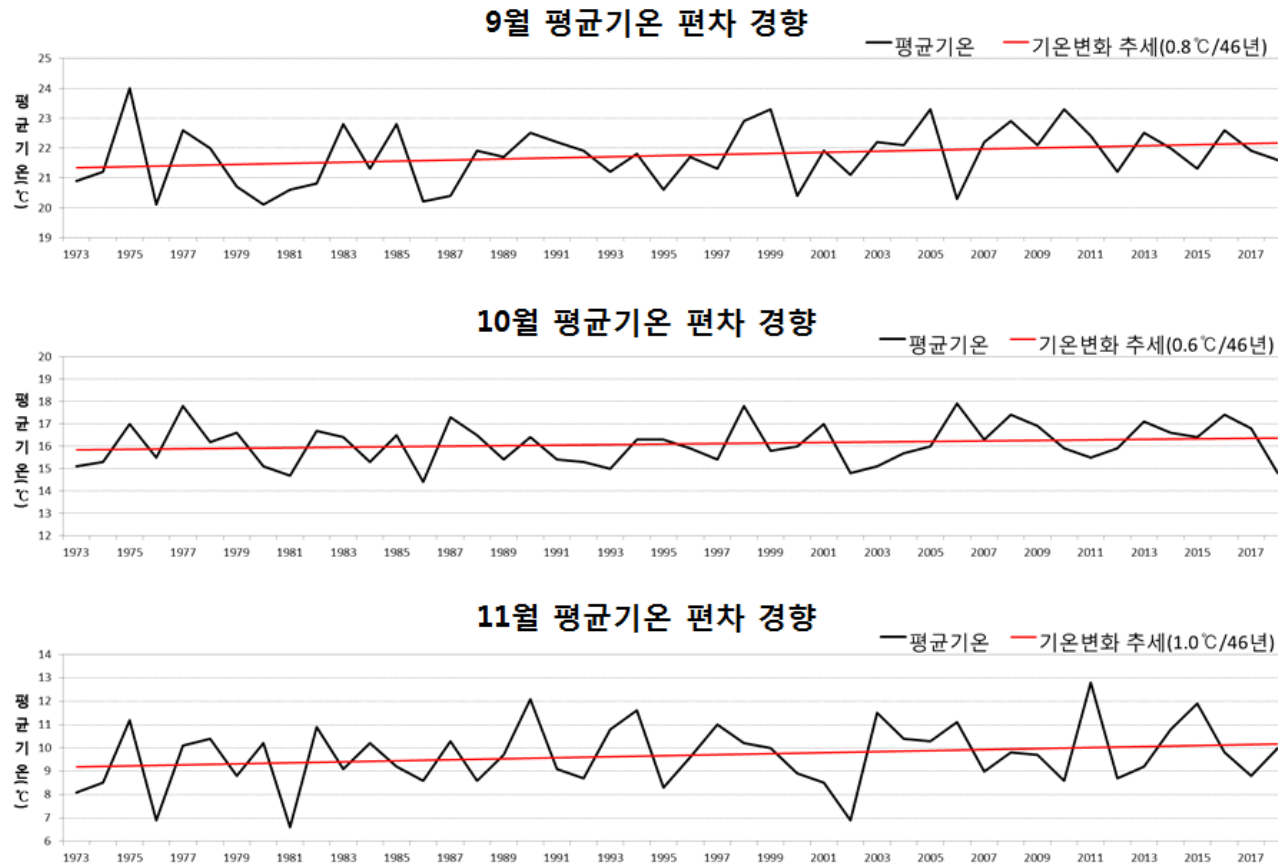


※ 출처 : National Snow and Ice Center

[그림 2] 2012년과 비교한 (a) 북극해 얼음 면적 변화와 (b) 북극해 얼음 면적 분포(8.19)

○ 온난화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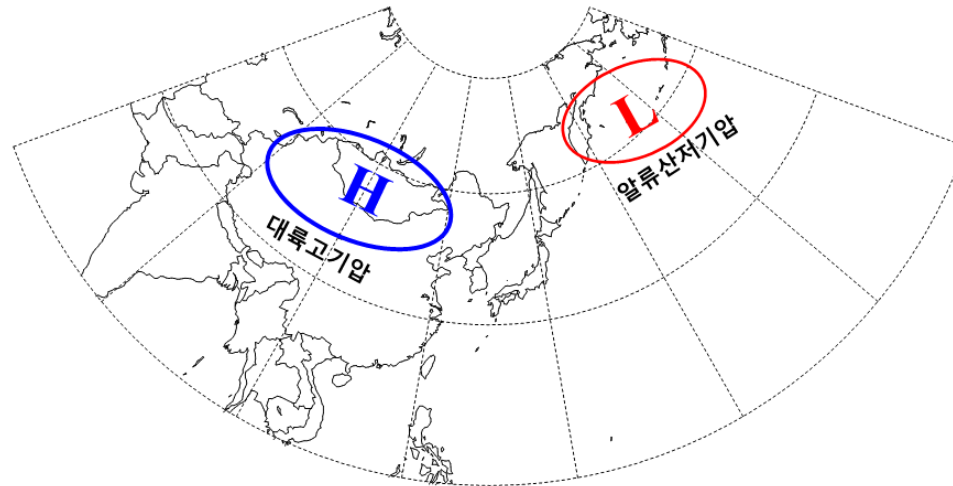
- 1973년 관측 이래 광주·전남 가을철 월별 평균기온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특히 11월이 다른 월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온 상승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남(+1.0℃/46년).



[그림 3] 연도별(1973년-2018년) 광주·전남 월 평균기온 경향

2. 기압계 전망

- (전반) 최근 우리나라 남동쪽에 위치한 북태평양고기압은 9월 전반까지는 영향을 주다가 점차 수축하겠고, 우리나라는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겠으며 북쪽으로 상층 기압골이 위치할 것으로 전망
 - ⇒ 9월 전반까지는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에 놓여 남서기류의 영향을 받겠음
 - ⇒ 일시적으로 북쪽 찬 공기의 영향이 있겠으나 기압계의 동서 흐름이 원활하여 기온하강 폭은 크지 않겠음.
- (후반) 대륙고기압(시베리아고기압)과 알류산 저기압의 발달이 평년보다 다소 약할 것으로 전망
 - ⇒ 북풍이 평년보다 약해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됨.



[그림 4] 대륙고기압과 알류산 저기압 위치

3. 가을철 전망

[기 온]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으나, 기온의 변화가 크겠습니다.
 [강수량] 9월은 평년과 비슷하겠고, 10월과 11월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겠습니다.

○ 날씨 전망

(9월)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점차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겠고, 일시적으로 상층 한기의 영향을 받을 때가 있겠습니다.

(월평균기온) 평년(21.4~22.2℃)과 비슷하거나 높겠습니다.

(월강수량) 평년(61.3~215.1mm)과 비슷하겠습니다.

(10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겠으나,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을 때가 있겠습니다.

일시적으로 상층 한기의 영향을 받을 때가 있겠습니다.

(월평균기온) 평년(15.7~16.5℃)과 비슷하거나 높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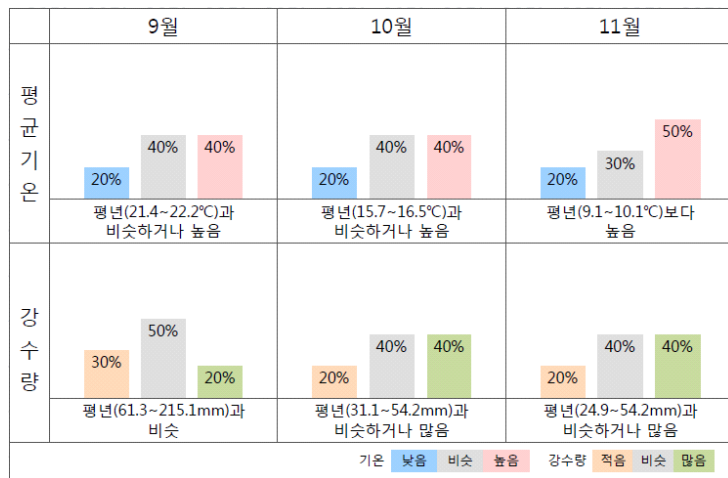
(월강수량) 평년(31.1~54.2mm)과 비슷하거나 많겠습니다.

(11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겠으나, 남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을 때가 있겠습니다. 또한, 일시적으로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을 때가 있겠습니다.

(월평균기온) 평년(9.1~10.1℃)보다 높겠습니다.

(월강수량) 평년(24.9~54.2mm)과 비슷하거나 많겠습니다.

[표 1] 광주전남 가을철 전망(2019년 9월~11월)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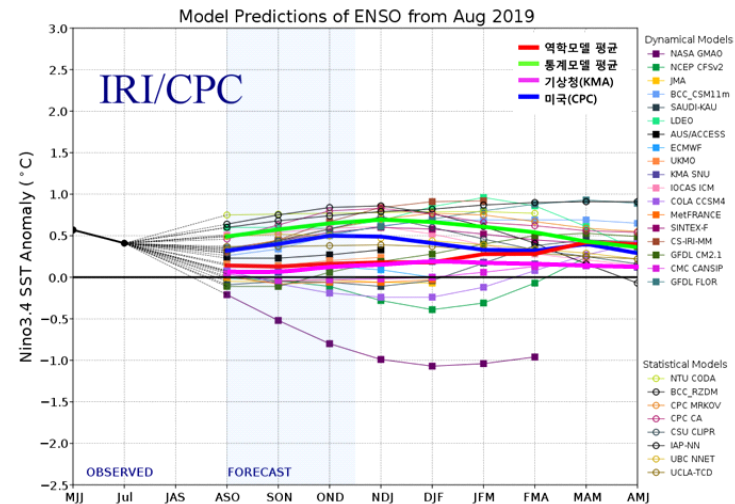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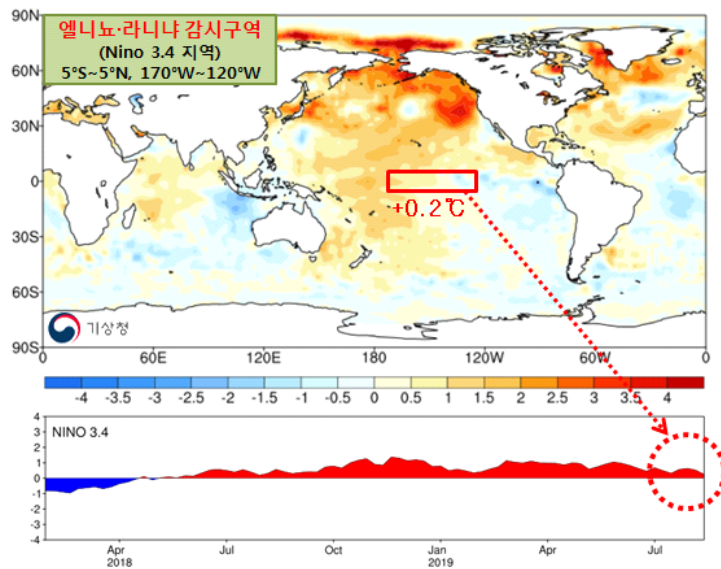


II. 엘니뇨·라니냐 전망

- 최근(2019.8.11~8.17.) 엘니뇨·라니냐 감시구역(Nino3.4, 5° S~5° N, 170° W~120° W)의 해수면온도는 평년보다 0.2°C 높으나, 중립상태를 보이고 있음.

※ 최근 엘니뇨·라니냐 감시구역 해수면온도 편차 현황: 2019년 5월 +0.7°C, 6월 +0.7°C, 7월 +0.5°C(ERSSTv5¹⁾)

- 엘니뇨·라니냐 예측 결과에 의하면, 올 가을철 동안 중립상태가 유지될 보일 것으로 전망됨.



[그림 5] (왼쪽) 엘니뇨·라니냐 감시구역의 최근(8.11~8.17.) 해수면온도 편차(OISSTv2²⁾)와 (오른쪽) 세계 각국의 엘니뇨·라니냐 예측 결과(출처: IRI³⁾)

※ 엘니뇨(라니냐) 정의: 엘니뇨·라니냐 감시구역(열대 태평양 Nino3.4 지역: 5°S~5°N, 170°W~120°W)의 3개월 이동평균한 해수면온도 편차가 +0.5°C 이상(-0.5°C 이하)으로 5개월 이상 지속될 때 그 첫 달을 엘니뇨(라니냐)의 시작으로 봄 (2016.12.23.부터 적용)

1) ERSSTv5: Extended Reconstructed Sea Surface Temperature(확장 복원된 해수면 온도)
 2) OISSTv2: Optimum Interpolation Sea Surface Temperature(최적 내삽된 해수면 온도)
 3) IRI: International Research Institute for Climate and Society(기후 및 사회를 위한 국제 연구 기관)

Ⅲ. 태풍 전망

○ 태풍 활동 특징(2019.8.21.기준)

- 현재까지 북서태평양에서 활동한 11개의 태풍 중 9개가 여름철에 발생하였고, 이 중 4개(제5호 '다나스', 제8호 '프란시스코', 제9호 '레끼마', 제10호 '크로사')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었음.
- 올 여름 태풍이 주로 발생한 필리핀 동쪽 해상의 해수면 온도는 평년보다 다소 높았지만 대기하층과 대기 중층의 저기압 편차, 대기상층에서의 수렴으로 인해 평년과 비슷한 수의 태풍이 발생하였음.

[표 2] 태풍 발생 현황(2019년 8월 20일 현재)

(평년 : 1981-2010년)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합계
평년	0.3	0.1	0.3	0.6	1.0	1.7 (0.3)	3.6 (0.9)	5.8 (1.1)	4.9 (0.6)	3.6 (0.1)	2.3	1.2	25.6(3.1)
금년	1	1	-	-	-	1	4(1)	4(3)	-	-	-	-	11(4)

※ ()안의 숫자는 우리나라에 영향(발생일 기준)을 준 태풍 수이며, 발생 수(평년) 합계는 매월 발생 수의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 값들의 합

○ 2019년 가을철 태풍 전망

- 북서태평양 해역에서 평년 수준인 9~12개의 태풍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이 중 1개(평년 0.7개) 내외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겠음.
- 가을철 북태평양고기압이 점차 수축하면서 주로 남중국해보다 일본 남부해상을 지나는 태풍의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을 것으로 전망됨.

IV. 겨울철 기후전망(2019년 12월~2020년 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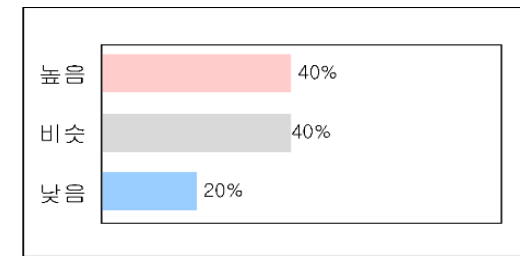
-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겠습니다.
- 엘니뇨·라니냐는 겨울철 동안 중립상태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1. 기온 전망

평년(0.1~1.1℃)과 비슷하거나 높겠습니다.

대륙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기온의 변화가 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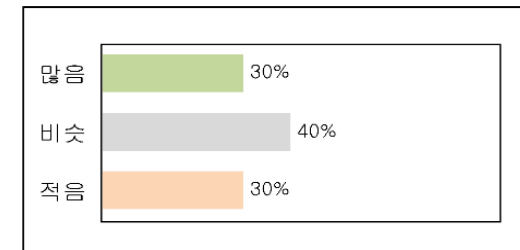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있겠습니다.



2. 강수량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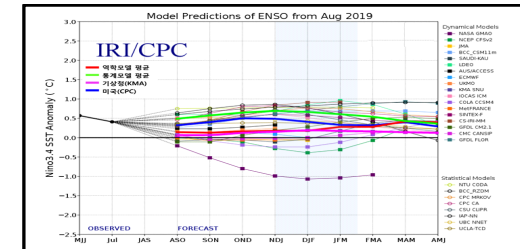
평년(67.7~97.3mm)과 비슷하겠습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고 건조한 날이 많겠으나, 대륙고기압 확장 시 서해안에는 지형적인 영향으로 많은 눈이 내릴 때가 있겠습니다.



3. 엘니뇨·라니냐 전망

겨울철 동안 중립상태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 겨울철에 대한 3개월 전망(2019년 12월~2020년 2월)은 2019년 11월 22일에 발표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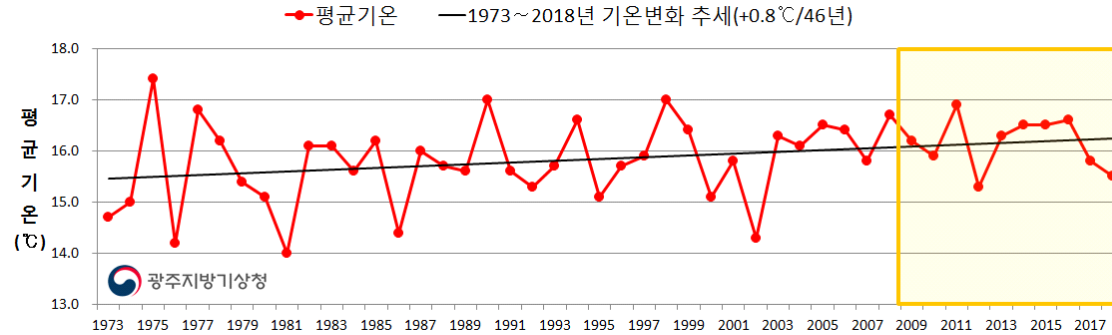
※ 참고사항: 기후전망은 계절에 관한 평균상태를 3분위(낮음/적음, 비슷, 높음/많음)로 구분하여 단계별 발생 가능성을 백분율로 산출합니다. 백분율이 33.3% 이상일 경우 해당 단계의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의미입니다.

V. 최근 10년(2009~2018년) 가을철 날씨특성 및 특이기상

1. 가을철 기온과 강수량 특성

○ 기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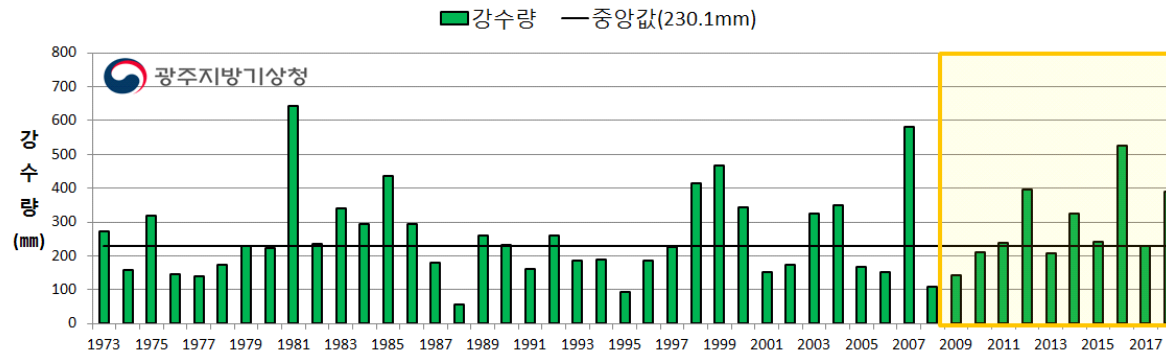
- 최근 10년(2009년~2018년) 가을철 광주·전남 평균기온은 16.2℃로 평년(15.8℃)보다 0.4도 높았음.



[그림 6] 연도별(1973~2018년) 가을철 광주·전남 평균기온(9월~11월)

○ 강수량

- 최근 10년(2009년~2018년) 가을철 광주·전남 강수량은 290.4mm로 평년(182.9~295.4mm)과 비슷했음.



[그림 7] 연도별(1973~2018년) 가을철 광주·전남 강수량(9월~11월)

[표 3] 최근 10년 광주·전남 월별 평균 기후값

기후 요소	단위	9월	10월	11월
평균기온 (평년편차)	℃	22.1 (+0.3)	16.3 (+0.2)	10.0 (+0.4)
평균 최고 / 최저 기온	℃	26.8 / 18.2	21.8 / 11.7	15.1 / 5.6
강수량 / 강수일수	mm / 일	137.7 / 9.3	87.9 / 6.5	64.8 / 8.6
일조시간	시간	188.8	212.4	167.1
일교차 10℃ 이상 일수	일	10.8	15.5	12.8
일최저기온 0℃ 미만 일수	일	0.0	0.1	3.4

※ 기온·강수량은 7개(광주, 목포, 여수, 완도, 장흥, 해남, 고흥), 일조시간은 4개(광주, 목포, 여수, 완도) 지점의 평균

※ 최근 10년: 2009~2018년, 평년기간: 1981~2010년

[표 4] 최근 10년(2009~2018) 광주·전남 주요 도시 계절관측

		광주	목포	여수
첫 서리	가장 빠른 날	2011. 10. 26.	2010. 10. 27.	2013. 11. 28.
	10년 평균	11. 7.	11. 22.	12. 27.
첫 얼음	가장 빠른 날	2010. 10. 27.	2010. 10. 27.	2009. 11. 18.
	10년 평균	11. 12.	11. 28.	12. 2.
첫눈	가장 빠른 날	2009. 11. 2.	2013. 11. 17.	2009. 11. 16.
	10년 평균	11. 29.	11. 29.	12. 8.

○ 첫눈

- 광주, 목포는 11월 하순에, 여수는 12월 상순에 첫 눈이 내림
※ 최근 10년 평균 첫눈(평년편차): 광주 11월 29일(+4일), 목포 11월 29일(+1일), 여수 12월 8일(-1일)

○ 첫서리

- 광주는 11월 상순에, 목포는 11월 하순에, 여수는 12월 하순에 첫 서리가 나타남
※ 최근 10년 평균 첫서리일(평년편차): 광주 11월 7일(+3일), 목포 11월 22일(-3일), 여수 12월 27일(+28일)

○ 첫얼음

- 광주는 11월 중순에, 목포는 11월 하순에, 여수는 12월 상순에 첫 얼음이 얼었음
※ 최근 10년 평균 첫얼음일(평년편차): 광주 11월 12일(+3일), 목포 11월 28일(+3일), 여수 12월 2일(+10일)

2. 특이기상 및 영향

○ 고온 현상

- (2017년 10월)

- 우리나라 남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과 고기압 가장자리에 자주 들면서 구름 낀 날이 많아 최저기온이 크게 상승하여 광주·전남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았고, 1973년 이래 광주·전남 평균 최저기온이 다섯 번째로 높았음.
월평균 최저기온(°C): 5위 12.7(편차 +1.5) / [1위 2016년 13.9(편차 +2.7)]

- (2016년 10월)

- 저기압의 영향을 자주 받아 남쪽으로부터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었고, 구름 낀 날이 많아 복사냉각이 약하였음. 1973년 이래 광주·전남 평균기온이 네 번째로 높았고, 평균 최저기온은 가장 높았음.
월평균 기온(°C): 4위 17.4(편차 +1.3) / [1위 2006년 17.9(편차 +1.8)], 월평균 최저기온(°C): 1위 13.9(편차 +2.7)

- (2015년 11월)

- 난기 유입과 구름 낀 날씨로 최저기온이 상승하여 광주·전남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았음. 1973년 이래 광주·전남 평균기온은 세 번째로, 평균 최저기온은 두 번째로 높았음.
월평균 기온(°C): 3위 11.9(편차 +2.3) / [1위 2011년 12.8(편차 +3.2)], 월평균 최저기온(°C): 2위 8.6(편차 +3.7) / [1위 2011년 8.8(편차 +3.9)]

– (2011년 11월)

- 남쪽의 고온 다습한 기류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최고기온 극값을 경신한 곳이 많았음. 1973년 이래 광주·전남 평균기온과 평균 최저기온이 가장 높았음.

월평균 기온(°C): 1위 12.8(편차 +3.2), 월평균 최고기온(°C): 2위 17.4(편차 +2.3) / [1위 1990년 17.8(편차 +2.7)], 월평균 최저기온(°C): 1위 8.8(편차 +3.9)
일최고 기온(°C) [11월 극값 1위]: 3일 광주 27.1, 완도 24.4, 장흥 26.5, 4일 영광군 26.9

– (2011년 9월 12일~17일)

-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의 온난 습윤한 공기유입과 강한 일사의 영향을 받아 고온 현상이 나타났음.

일최고 기온(°C) [9월 중순 극값 1위]: 16일 고흥 34.1, 장흥 33.7, 17일 완도 33.0, 영광군 32.5, 해남 33.0

○ 저온 현상

– (2015년 11월 25일~28일)

- 기압골이 통과하고 찬 대륙고기압이 남하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추운 날씨가 나타났으며, 26~27일에 광주·전남 일부지역에 많은 눈이 내렸음.

일최저 기온(°C) [11월 극값]: 1위 26일 흑산도 -0.2, 4위 27일 흑산도 1.7 / 일최심 신적설(cm) 26일 광주 5.5

– (2012년 11월)

-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추운 날씨가 자주 나타났으며, 광주·전남 평균 최고기온이 1973년 이래 네 번째로 낮았음.

월평균 최고기온(°C): 4위 13.1(편차 -2.0) / [1위 1981년 11.6(편차 -3.5)]

○ 태풍과 많은 비

– (2018년 10월 5~6일)

- 제25호 태풍 ‘콩레이’는 5일 제주도 부근으로 북상하여 6일 경상남도 통영에 상륙. 5~6일 남부지방과 동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내려 광주·전남 일부 지역에서 10월 일강수량 극값을 기록하였음.

일강수량(mm) [10월 극값 1위]: 5일 영광군 121.5, 6일 장흥 95.5, 해남 112.3 / 최대순간풍속(m/s) [10월 극값 1위]: 6일 흑산도 32.4

– (2016년 10월 5일)

- 제18호 태풍 ‘차바’는 10월에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준 강력한 태풍으로, 제주도와 경남남해안으로 북상하여 태풍에 동반된 수증기가 강한 바람과 함께 지형과 부딪히면서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음.

일강수량(mm) [10월 극값]: (1위) 5일 고흥 125.1, (3위) 5일 여수 101.6, 완도 87.0, 장흥 74.7, 영광군 49.5

– (2015년 11월)

- 엘니뇨의 영향으로 필리핀 해 부근에 형성된 고기압성 흐름으로 인해 우리나라로 따뜻한 남풍계열의 바람과 함께 많은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1973년 이래 광주·전남 11월 강수량이 다섯 번째로 많았음.

월강수량(mm): 5위 90.7 / [1위 1997년 198.8]

– (2014년 11월 24일)

- 우리나라 남서쪽에서 다가온 저기압의 영향으로 경기도와 강원도를 제외한 대부분 지방에 많은 비가 내렸으며, 광주·전남 일부지역에서는 11월 일강수량 극값을 기록하였음.

일강수량(mm) [11월 극값 1위]: 24일 목포 64.9, 흑산도 53.0, 영광군 54.5

– (2012년 9월)

- 제15호 태풍 ‘블라벤’(8월 28일)과 제14호 태풍 ‘덴빈’(8월 30일), 제16호 태풍 ‘산바’(9월 17일)의 상륙으로 3개의 태풍이 한반도에 연이어 상륙한 최초의 사례였으며,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내렸음.

최대순간풍속(m/s) [9월 극값]: 17일 2위 영광군 22.6, 3위 목포 27.7, 고흥 24.6 / 일강수량(mm) [9월 극값]: 17일 1위 영광군 153.5

– (2010년 9월 1일~2일)

- 제7호 태풍 ‘곤파스’가 서해안을 따라 북상하면서 강한 바람이 불어 일부 지역에서 최대순간풍속 극값을 기록하였음.

최대순간풍속(m/s) [9월 극값 1위]: 1일 흑산도 45.4, 2일 영광군 23.3

○ 건조 및 가뭄

– (2017년 11월)

- 주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고 건조한 날이 많았음. 1973년 이래 광주·전남 강수량이 가장 적었고 강수일수는 두 번째로 적었음.

월강수량(mm): 1위 1.5 / 월강수일수(일): 2위 3.1 [1위 2007년 2.4]